

구역:

이름:

<p>4월 1 월요일</p>	<p>열왕기하 1장-4장 □ (핵심장 4장) □</p>	<p>*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는 아하시야는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이 완쾌될지 궁금 하여 블레셋의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한 편,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이어서 말합니다. 시대는 여전히 혼란했으며, 주병국과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엘리사와 그 주변 사람들의 집중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사역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 주신 일들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p>
<p>문제</p>	<p>“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 께서 말씀하신대로 () 남았더라”</p>	
<p>4월 2 화요일</p>	<p>열왕기하 5장-8장 □ (핵심장 8장) □</p>	<p>* 이들이 언약 백성일까: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북왕국은 더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죄 대상으로 여겼던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피부병을 고치는 사건과 사마리아의 포위를 풀어 버린 굶주린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소외된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지만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부를 수 있을까요?.</p>
<p>문제</p>	<p>“여호와께서 그의 종 ()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p>	
<p>4월 3 수요일</p>	<p>열왕기하 9장-12장 □ (핵심장 11장) □</p>	<p>*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순종에는 은혜로 : 열왕기에는 ' 열왕기' (여러 왕에 대한 기록)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북 왕국의 여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아람왕 벤하닷과 하사엘, 여호람, 아하시야, 예후, 요람, 아달랴, 요아스 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람의 벤하닷과 북왕국의 요람 등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데 , 특히 요람은 그의 모후 이사벨과 함께 예후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이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명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아합 왕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부강함은 한낱 모래알 같아서 오래 가지 않아 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 한 아달랴 여왕 역시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 하는 남왕국은 일시적인 은혜가 임하고 나라도 평안을 누립니다.</p>
<p>문제</p>	<p>“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 세였더라”</p>	

<p>4 월 4 목요일</p>	<p>열왕기하 3 장-16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3 장) <input type="checkbox"/></p>	<p>*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왕국 : 본문에는 여호와하스, 요아스, 아마샤, 여로보암 2 세,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브기히야, 베가, 아하스, 이렇게 모두 12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중 남왕국의 왕은 아마샤와 아사랴 , 요담, 아하스 4 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북왕국의 왕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당시 떠오르는 강국 앗수르를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데만 열심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사마저 죽으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고, 국제정세는 두 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목전에 이릅니다.</p>
<p>문제</p>	<p>“요아스가 () 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p>	
<p>4 월 5 금요일</p>	<p>열왕기하 17 장-20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9 장) <input type="checkbox"/></p>	<p>* 북왕국에 이어 남왕국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 북왕국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집니다. 열왕기는 북왕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명확히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지만, 역시나 앗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유다의 멸망을 호원장담하는 앗수르의 산헤립 앞에서 남왕국 역시 북왕국처럼 무너지고 언약 백성은 곧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북왕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차례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이 남왕국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다고 전합니다..</p>
<p>문제</p>	<p>“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 () 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 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p>	
<p>4 월 6 토요일</p>	<p>열왕기하 21 장-25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5 장) <input type="checkbox"/></p>	<p>* 멸망하는 유다 왕국: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의 등장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은 멈출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율법의 기록된 대로 우상을 몰아내고, 신실하다고 평가 받았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산당 파괴까지 진행하며 온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요시야가 전쟁 중에 죽자, 유다는 다시 멸망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간 왕 여호야킨을 바벨론 왕이 석방하여 선대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p>
<p>문제</p>	<p>“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의 왕 () 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 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